

# 唐宗海의 醫學思想

李泌雨·金容辰·尹暢烈\*

## I. 緒論

中國에 阿片戰爭이 發生한 以後부터 中華人民共和國(지금의 中國)이 成立되기까지의 醫學을 近代醫學이라 할 수 있다. 이 時期에는 西洋醫學이 廣範圍하게 中國에 전파됨으로서 상당한 發展을 하였다. 西醫學의 流入은 客觀적으로 中國에 새로운 醫學科學知識을 가지고 왔고, 國民의 保健事業에 重要的 作用을 하였다. 그러나 西洋科學文明의 無分別한 吸收와 西洋醫學을 利用한 文化的 侵掠政策을 펴는 過程에서 中醫를 廢止할 것을 主張하여 中醫學의 發展에 큰 妨害要因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敗亡에까지 이를 狀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中醫學界에서는 일부 進歩的인 醫家들이 中醫學을 發展시킬 方法을 摸索하기 始作하였으나 當時의 歷史的 條件 아래에서 그들은 正確한 方向을 定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勞力은 中國醫學의 歷史上에 進歩的인 意義가 있다.

近 百年間을 總體的으로 살펴보면 中醫學은 緩慢한 成長을 하였다. 具體的으로 이 時期에 적지않은 醫家들이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 神農本草經 등 古典 醫書의 考證과 註釋, 校監, 編輯에 노력하였고, 古代의 重要的 醫籍을 保存 研究하는데에 一定의 貢獻을 하였다.

또한 治療方面에서는 內科, 外科, 小兒科, 婦人科 등의 疾病에 對한 새로운 臨床 經驗이 누적되어 各 科의 綜合的인 著書나 하나의 個別 疾病의 專門書籍이 많이 나왔다. 그 중의 溫病, 霍亂, 中風, 虛勞, 瘡瘍, 癩疹, 驚風, 痘症 및 眼, 咽喉의 疾患에 對한 研究는 더욱 많았다. 이 時期에 各科의 臨床的인 새로운 成就是 많았으나 理論上에서 큰 成果는 不足하였다.

藥物學과 方劑學에서도 進殿이 있었다. 藥物學方面에서는 古代의 本草書에 對한 偏執과 考證이 이루어졌고, 當時의 用藥의 經驗을 總結하였으며, 藥物의 鑑別

---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과 效果의 研究도 새로운 成就가 있었다. 方劑學의 方面에서는 方劑學의 理論에 對한 探究와 方劑學의 著書의 整理와 編纂 및 民間單方, 秘方, 驗方의 收集 등 比較的 많은 成就가 있었다.

中醫學 知識의 普及도 이 時期의 重要한 特徵이다. 大量의 中醫學에 關한 類書, 醫案, 醫活, 入門書, 工具書 및 臨床 各科의 通俗書籍들이 出版되었다. 이러한 著作은 中醫學知識의 保存, 傳播, 普及에 積極的인 作用을 하였다.

또한 中醫學에 對한 教育이 活潑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어려운 條件下에서 中醫學界의 여러 人사들이 中醫學交를 設립하고 中醫學 教材의 編纂, 中醫學 學術財團의 設立, 中醫 定期雜誌의 出版 등을 通하여 中醫學을 守護하고 發展시키는 데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이 時期의 學術潮流는 크게 세가지 方向으로 進行되었다. 첫째로 中西匯通思想이다. 近代에 中西醫의 匯通思想을 主張한 사람은 醫學家가 아니라 當時의 洋武派인 李鴻章이었다. 1890년 李鴻章은 《萬國藥方》의 序를 쓰면서 이르기를 “是書全面用藥方劑 亦如 葛洪《肘後》, 思邈《千金》之體以便循省 儻學者合中西之說而會其通以造于至精極微之境 與醫學豈曰小朴”이라 하여 中西匯通論을 가장 먼저 論述하였다. 이것의 影響은 지극히 커서 醫學界에서도 唐宗海, 朱沛文, 張錫純, 惲鐵樵 等の 著名한 醫家들이 中西匯通 思想을 主張하였다.

둘째로 中醫廢止論이다. 이것은 中醫의 理論과 治療效果를 否定하고 中西匯通思想에 反對하여 中醫를 廢止하고 西醫를 中心으로 醫學을 하여야 한다는 主張으로 俞樾, 余云岫, 汪企張 等이 이 部類에 屬한다.

셋째로 改造中醫論이다. 中醫學의 發展과 廢止의 兩論이 서로 論爭을 하는 過程에서 여러 醫家들이 中醫學을 守護하고 發展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時代潮流에 合하여 中醫學을 改造하여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기 始作하였다. 이들은 “中醫科學化”, “中醫現代化”, “改造中醫”, “改良中醫”, “改進中醫” 等 을 主張하고 아울러 中醫科學研究社와 같은 學術財團의 設立, 中醫科學雜誌의 創刊, 中醫科學書局의 建立 등으로 中醫學의 科學化의 探究가 進行되었다. 이러한 主張의 發表는 近代醫學史에서 많은 影響을 미쳤다. 그 중의 陸淵雷와 譚次仲의 論述과 著述이 代表的이다.

이에 著者는 이 時代에 中西匯通思想의 代表的인 醫學家인 唐宗海의 生涯와 醫學思想을 그의 著書를 中心으로 研究를 試圖하여 몇 가지 特徵的인 學術思想을 發見할 수 있었기에 臨床的으로나 理論的으로 有用할 것으로 思料되어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唐宗海의 生涯와 著書

#### 1) 唐宗海의 生涯

唐宗海의 字는 用川이고, 四川省의 彭縣人이다. 清代 同治 元년에 태어나 民國 七年(西紀 1862-1918年) 享年 近 56세로 生을 마쳤다. 唐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고 聰敏하였으며 三蜀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弟子가 수십명이나 되었다. 光緒 己丑年(公元 1889年)에 進士가 되었다.

當時의 改良主義 思想의 影響을 많이 받았고, “戊戌六君子”의 하나인 劉光第와 好友로, 劉氏의 著書 《衷聖齋詩集》에는 《送唐融川大令宗海任來貧》이라는 唐氏에게 廣西來貧에 知縣으로 任命하며 써준 詩 한 수가 記載되어 있다.

唐氏는 學識이 넓었으며 어린 나이에 몸이 약해 病이 잦아 일찌기 方書를 學習하여 中年에는 醫學을 專攻하였고 老年에 이르기까지 잠자리에 들때까지도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唐氏는 평생 嚴勤하게 學問을 가르쳤고 博采衆長을 主張하여 “옛 것을 좋아하되 古人을 迷信하지 말며 넓게 배워 長點은 取하고 短點은 버리라.(好古而不迷信古人 博學而 能取長舍短)”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前人の 成就를 盲目的으로 崇拜하지 않았고 取長舍短하여 좋은 것만을 택하여 따랐다. 그 例로 《血證論》에서 그는 “李東垣은 治病에 以氣爲主故로 專主脾胃라 然이나 用藥에 偏於剛燥하며 …… 朱丹溪는 治病에 以血爲主故로 用藥에 偏於寒涼이라.(李東垣은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 氣로서 爲主 하였으므로 오로지 脾胃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藥을 使用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燥함에 치우쳤으며 …… 朱丹溪는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서 血로서 爲主 하였으므로 用藥에 寒涼에 치우쳤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醫師들이 옛 것을 고집하여 食古不化하는 現象에 對하여 “醫者는 辨證에 있어서 자세히 하지 않음이 不可하며, 用藥에 있어서도 한가지로 固執함은 不可하니, 近日에 丹溪를 從하는 者는 오로지 苦寒한 藥만을 使用하고, 修園을 從하는 者는 오로지 溫藥만을 사용하니 모두가 하나의 弊端인 것이다(醫者는 辨證에 不可不詳하며, 而用藥에 不可執一이니 近日에 從丹溪者는 專用寒藥하고, 從修園者는 專用溫藥은 皆是一弊라.)”라고 尖銳한 批判을 하였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讀書를 많이 할 것을 啓蒙하였다. 書中の 內容에 對하여 全面을 理解하여 取捨를 正確히 하라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云한 것을 따라 云하여 訛傳된 것을 訛傳된 그대로 傳하지 말라 하였다.

唐宗海는 博采衆長(여러 長點들을 널리 採集한다)을 잘하여 西洋醫學에 對한 知識으로 表現을 많이 하였다. 醫學을 研究함에 있어 古今中外를 莫論하고 長點이 있으면 應當히 取하고, 短點이 있으면 마땅히 버릴 것을 主張하였다. 당시의 社會的 背景이 西洋의 科學文物이 流入되는 時期이었으므로 西洋醫學도 따라 날로 盛하여져 큰 影響을 미쳤고 唐氏는 西洋醫學의 知識으로서 中醫學의 基礎理論을 解釋하여 “中西匯通”의 소망을 實現하고자 圖謀하였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같은 사람이며, 같은 마음이니 西醫에 또한 長點이 있으며, 中醫에 어찌 短點이 없으리오! 대개 西醫가 처음 出함에 두루 자세하지 못하고, 中醫는 訛傳되어 이내 誤謬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靈》, 《素》 諸經을 모아 中西의 뜻을 兼하여 解釋하였으며, 異同의 境界를 억지로 規程짓는 見解가 없도록 하였고, 다만 折衷하여 하나의 理致로 歸納되게 하고자 하였다.(同是人也 同是心也니 西醫에 亦有所長하며 中醫에 豈無所短이리오! 蓋西醫는 初出하여 未盡周詳하고 中醫는 沿訛하여 率多差謬라. 因集靈素諸經하고 兼中西之義로 解之하니 不存疆域異同之見하며, 但求折衷歸于一是)”라 하였다. 이것은 그가 學習을 잘 하고, 探索에 勇敢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創始하는데에 과감하게 하는 治學精神을 反影하는 것이다.

그의 醫史學的으로 가장 重要한 것은 《血證論》의 著述이다. 《血證論》은 《內》, 《難》 및 仲景의 書에 根據하여 血證論治에 對하여 깊은 研究를 하였고, 方書를 閱覽하고 스스로 經驗하여 理論上에 있어서의 血證의 病因, 病理, 診斷, 治法의 系統的인 闡發뿐만 아니라 長期的인 醫療實踐 過程에서 많은 貴重한 經驗을 累積, 總結하여 中醫의 血證論治를 豊富히 하는데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

## 2) 唐宗海의 著書

唐宗海의 著書로는 中西匯通醫書五種으로 《中西匯通醫經精義》, 《血證論》, 《金匱要略淺註補正》, 《傷寒論淺註補正》, 《本草問答》이 있고, 以外에 《痢證三字訣》과 死後에 出刊된 《醫易通說》이 있다.

### ① 中西匯通醫經精義

《中西匯通醫經精義》는 1892년에 成書된 것으로 總二卷으로 되어 있다. 이 書는 中西醫 두 가지의 理論으로서 《內經》을 註釋하여 만든 것으로 唐宗海의 醫學思想의 代表的인 中西匯通思想을 가장 자세하게 敘述한 것이다.

이 書가 實用함을 기도하여 各種 經古文詞와 서로 다르므로 解義訓誥함에 있어서 漢宋 文豪의 나뉘이 없게하며 中西醫의 異同의 見解가 없게하고 經旨가 瞭然하게 드러나고 足히 實用的이게 하여 世上에 有益하게 하고자 하였다.

本書의 內容은 대부분 《內經》의 內容을 中心으로 中醫學의 基本的인 內容을 西洋醫學과 結合하여 說明하였다. 本書의 凡例에 이르기를 “唐宋 以後의 醫學은

誤謬가 많고 西法이 近出하여 形迹에는 자세히 하였으나 氣化에 對해서는 略述하여 粗雜함을 얻고 精密함을 잃었으니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靈》, 《素》 諸經을 集積하고 그 要語를 採集하여 篇을 나누고 자세히 註를 달아 그 失을 救濟하고자 하였다(唐末以後醫學多譌西法近出詳形迹而略氣化得粗遺精皆失也라 因集靈素諸經 採其要語分篇詳註爲救其失).”라 하였다.

本書의 每篇마다 四字로 標題를 삼아 章節을 區別하여 學者가 먼저 綱目을 알아 深究하기 쉽게 하였다. 上卷에는 人身陰陽, 五臟所生, 五臟所屬, 五臟所藏, 五臟所主, 臟腑所合, 臟腑之官, 五臟九竅, 男女天癸, 血氣所生, 營衛生會, 六經六氣, 經氣主治, 十二經脈, 衝任督帶를言及하였고 下卷에서는 全體總論을 먼저 들고, 病機와 治法을 說明한 五臟所傷, 五臟所惡, 臟腑爲病, 諸病所屬, 四時所病, 臟腑通治, 望形察色, 聞聲別證, 問察原委, 診脈精要, 審治處方, 氣味陰陽, 性味宜忌, 七方十劑 등을 說明을 하였다. 이것은 體裁를 著述한 것은 아니고 深究함에 있어서 大雅(큰 줄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註釋을 함에 있어서는 대부분 心得한 것을 主로 하였고 모두 經으로 經을 解釋(以經解經)하여 조금도 잘못 解釋하거나 牽強附會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或間 西法을 採用하거나 舊說을 使用함에 있어서도 事實인 것만 求하였다.

本書의 特徵中 하나는 臟腑圖를 西洋醫學의 解剖學的인 바탕위에서 자세히 그려놓은 것이다. 이것은 그 當時의 社會의 狀況이 西洋의 科學文明이 밀려 들어와 客觀的이고 物質的인 것이 重視되던 狀況을 反映한 것이다. 일찌기 中國의 《醫林改錯》에서 일찌기 臟腑를 解剖해 보았기 때문에 西醫에서 말한 것과 大略 같으니 足히 中國臟腑와 西人이 原은 差別이 없으니 그 그림을 採集하여 證明이 되게 하였다. 凡例에서 이르기를 “中國의 臟腑圖는 모두 宋元 以後의 사람이 그린 것으로 人身 臟腑의 眞形과는 合하지 않은 것이 많으므로 各 그림에서 西醫의 그림을 드러내어 舊圖보다는 比較的 실로 자세하게 하였다(中國臟腑圖皆宋元以後人所繪與人身臟腑眞形多不能合故各圖照西醫繪出較舊圖實爲美善).”이라 하였다. 그러나 採入한 西人의 臟腑圖에 다만 西人의 說만으로 根據한 것이 아니라 實은 《內經》의 形迹으로 證明하여 조금도 爽快하지 않은 곳이 없게 하였으니 〈臟腑所屬篇〉에서 心臟과 心營肺衛의 關係를 說明함에 있어서 “西醫에 이르기를 心內에는 左右 네 개의 房이 있어 모두 管竅가 있고 生血回血의 쓰임이 된다. 血이 炭氣를 받으면 紫色이 되어 心의 右上房에 이르고, 하나의 總管이 있어 回血을 하여 心中에 入한 것을 받아 右下房으로 내린다. 또한 하나의 總管이 있어 血을 運搬하여 肺를 通過하여 肺에서 氣를 吸入하여 紫色을 除去하여 純赤色으로 變한다. 다시 心의 左心房으로 入하여 左下房으로 내리고 다시 總管이 있어 血을

運搬하여 全身에 두루 보내니 心에서 回轉하는 것이 《內經》의 營衛가 手太陰肺에서 交하고 心이 血脈을 主管한다는 것과 相通한다 하겠다(西醫言 心內分左右四房 皆有管竅 爲生血回血之用 血受炭氣則紫 回行至心右上房 有一總管 據回血入心中 落于下房 又一總管 運血出而過肺 被肺氣吹 去紫色 遂變純赤 還入心之左上房 落左下房 又有一總管 運血出行 遍於周身 回轉於心 此則 內經 營衛交會於手太陰肺及心主血脈之說也) 라 하여 西洋의 解剖學的인 面을 《內經》의 說과 서로 連結시켜 說明을 하였다.

이밖에 下卷에서는 血脈圖, 腦氣筋圖(神經圖), 骨圖 및 胞宮, 胸腔, 膻中, 喉嚨, 會厭, 舌, 懸雍垂, 橫骨, 眼球, 皮膚 등 人體 各部位의 解剖圖가 자세한 說明과 함께 記錄되어 있다. 여기에서 特別히 重要히 言及한 것은 三焦를 西洋에서 말하는 油膜連網이라 斷定하고 이를 水道의 通路라 하여 三焦가 決瀆之官이라는 《內經》의 說과 符合된다고 하였다. 또한 胃 五竅와 三焦는 中西에 모두 그 그림이 없으므로, 이제 特別히 《內經》의 義에 本하여 切實히 解出하였다. 西人의 形迹도 또한 슴하지 않음이 없으나 西人은 비록 形迹에는 자세하나 오직 《內經》의 精義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唐은 항상 西醫는 形迹에는 밝았으나 中醫의 氣化의 理論은 알지 못하였다고 主張하고 中醫學의 學說을 爲主로 할 것을 強調하였으니 特히 經絡學說이나 六經의 理論에 對해서는 西醫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 말하였다. 그러므로 本書에는 十二經脈과 奇經의 經穴은 同人에 나타난 그림을 爲主로 採入하여 說明하였고 義가 經旨를 發明하고자 하는데에 있으니 穴은 일일이 記載하지 않았고 經氣와 관련있는 經脈의 流走, 六經과 六經의 意味나 六經主治의 法 등은 자세히 모두 註釋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督脈은 西洋의 脊髓와 聯關하여 說明하였고, 任脈은 人身의 總血管을 指稱한다고 하여 經絡의 意味도 中西匯通의 思想으로 說明하려 노력을 하였다.

方證에 對하여는 비록 자세히 列舉하지 않았으나, 審證處方의 理致를 《內經》과 《難經》 등의 文章을 引用하고 發明함이 있는 것은 參酌하여 中西 各 醫書를 莫論하고 모두 編輯을 하고 註釋을 달아 迷顯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이처럼 本書를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의 方法으로 中西匯通思想을 展開하였다. 첫째는 中醫와 西醫의 原理가 一致하는 內容을 서로 같이 訓解하여 直接 "匯通"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西醫의 解剖學과 中醫의 氣化學說을 相互 結合하여 所謂 "取長補短"하여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學說은 後代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例를 들어 謝利恒은 일찌기 그를 讚揚하여 "능히 西를 參考하고 中을 崇尚하여 새로운 것을 얻되 옛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數十年 前에 일찌기

中西匯通을 알아 이제 後世醫家들의 大并이 되었으니 우리들中的 先知先覺이라 아니 말할 수 없다.(能參西而崇中 不得新而忘舊 且又數十年前 早知中西匯通爲今後醫家之大并 不可不謂吾道中之先知先覺也)"라 하였다.

## ② 傷寒論淺註補正과 金匱要略淺註補正

《金匱要略淺註補正》과 《傷寒論淺註補正》은 各各 1893年과 1884年에 完成되었다. 두 書籍은 陳修園의 《傷寒論淺註》와 《金匱要略淺註》를 基礎로 하여 補正을 加하여 成書하였으므로 이름을 補正이라 한 것이다. 陳修園의 《傷寒論淺註》와 《金匱要略淺註》는 張隱菴과 張令韶 두 註家의 註釋을 爲主로 하여 各家의 註釋을 採集한 것으로 지극히 正當한 것이 많으나 도리어 缺誤된 部分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唐宋 以後에 《內經》에 言及한 陰陽氣化의 臟腑를 親히 살펴본 이가 없어 두 張氏가 力救精心하여 그 理致를 實로 자세히 註釋하였으나 그 形迹에 있어서는 未備한 點이 많았다. 원래 形이 氣를 附着하고 있어 形迹을 떠나 氣만을 論하는 것은 確실한 解釋이 될 수 없다. 그러나 陳修園과 두 張氏의 時代狀況은 西醫가 아직 出現하지 않아 考察해 볼 다른 書籍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不足한 面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西洋 醫法이 그 形迹을 論한 것이 至極히 자세하나 오직 氣化에 對해서는 不足한 것이 短點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唐氏는 近世紀에 태어나 이미 前에 뛰어난 賢人들의 書籍을 보고 또한 後에 西醫의 證驗을 얻어 西醫의 形迹을 《內經》의 氣化에서 자세히 求하여 印證을 더욱 밝혀 이 書를 註解하여 缺誤된 것은 반드시 補正을 加하여 完全하게 노력하였다. 또한 漢文法이 漢時代와 近代가 서로 다름이 있으므로 後代의 註家들이 誤解가 많았다. 그러므로 淺註의 지극히 當然한 것은 尊守하였으며, 義에 甚히 精密하지 않으나 理致가 可히 通하는 것은 그대로 保存하여 論하지 않았고, 오직 義에 訛謬된 것은 바로 잡아 "正曰" 두 字를 加하였고 義에 漏落된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을 補充하여 "補曰" 두 字를 加하여 그 短點은 除去하고 그 長點은 保存하고자 하였다. 또한 原文이 傳寫됨이 오래되어 訛字가 있어 文義를 일일이 다 解釋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陳修園이 節句를 따라 註釋을 加했으니 오히려 可히 通하지 않는 것도 또한 억지로 通하게 하여 오히려 疑誤를 낳았다. 이에 唐氏는 여기에 特히 "闕疑" 二字를 加하여 高明한 後學의 見解를 기다리고 原文에는 無罪가 되게 하였고 淺註를 읽는 者가 잘못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仲景 序文에 '撰用素問九卷 陰陽大論 八十一難'이라 하였으나 今世의 註家들은 스스로 後說을 參考하지 않고 있다"라고 批判하고 近代의 西醫에 形迹을 論한 것이 足히 《內經》을 證明하는 바가 正確한 것은 採取하여 《內經》의 經旨를 尊重하고 仲景原文과 符合되게 하였으며, 또한 意가 相通하지 않는 것

은 間或 西醫를 非難하였으니 이것도 西醫를 攻擊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原文의 意味를 더욱 자세하게 할 따름인 것이다. 요컨대 聖學이 暢顯히 드러나게하고 後學들의 學文이 미치지 못하여 昏亂에 이르게 하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淺註의 每經 篇머리에 總論을 들지않고 文章을 따라 解釋을 하여 讀者가 匯通하기 어렵고 綱領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唐氏는 每經에 특별히 叢論 一篇을 보충하여 大旨를 밝혔으니 讀者는 먼저 이 六經 總論을 읽은 후에 다시 原文을 읽으면 자연 貫通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그 리고 陳修園의 淺註는 方註를 歌括로 지어 따로 一書를 지었으니 讀者들이 參考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니 唐氏는 특히 原文 註釋 아래에 編入하여 讀證讀方에 相互 參酌하여 그 理致가 드러나게 하였다.

《傷寒論淺註補正》에는 三焦에 對하여 그의 獨特한 見解를 자세히 論하였다. 唐宋 以後에는 三焦가 어떤 形體인지 알지 못하여 水道의 出入과 氣血의 往來와 臟腑의 連絡關係에 對하여 能히 밝히지 못하였다. 《醫林改錯》에 그 誤謬를 극히 批判하여 따로 氣腑가 있으니 즉 鷄冠油가 이것이라고 하였고, 西洋醫書에 三焦의 妄言을 排斥하여 따로 連網이 있으나 中國은 그것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어찌 谿冠油和 連網이 《內經》에서 언급한 三焦임을 알겠는가? 西醫는 水가 連網속을 따라 膀胱으로 入한다고 하였고 《醫林改錯》에 水가 谿冠油를 따라 膀胱으로 入한다고 하였으니 《內經》에서 말한 三焦者는 決瀆之官이니 水道가 出焉이라 한 것과 서로 符合된다고 할 수 있다. “焦”는 古書에서는 “熬”라고 쓰여졌고 또한 “臙”라고도 하였고 일찌기 日本의 《內經》을 살펴보면 三臙를 모두 “三臙”라고 記載하였다. 그러나 이 “臙”는 “臙”의 잘못된 表記이고 “臙”를 省略하여 “焦”라고 쓰인 것이다. 今人이 考證을 하지 않고 焦가 赤이라 하고 三焦를 ‘空腔子’라 하였으나 註家들의 誤謬가 모두 이곳에서 緣由된 것이니 그러므로 반드시 補正을 加하여 더욱 밝히고자 하였다. 故로 唐은 仲景이 論한 바에 “三焦”의 證驗을 涉獵하여 특히 자세한 說明을 少陽總論에 加하여 더욱 闡發을 하였다.

### ③ 血證論

《血證論》은 1884년에 成書되어 總 8卷으로 되어 있다. 이 書는 門類를 分類하여 醫學家들이 臨床에 活用함에 便하게 하였다. 卷一은 陰陽水火氣血, 男女異同, 臟腑病機, 脈證生死, 用藥宜忌 등에 對한 總論이다. 卷二에서 卷五까지는 血上乾證治, 血外滲證治, 血下泄證治, 血中瘀證治로 分論하여 吐血, 嘔血, 經閉, 胎氣 등 33證에 對하여 醫論과 方藥의 運用에 對하여 자세히 論을 하였다. 卷六은 失血로 因하여 나타나는 兼證 및 失血과 聯關된 各證에 對하여 論을 하였다. 卷七과 卷八은 方解와 本書에 引用된 各方의 篇例와 아울러 附註를 달아 자세히



解説하였다.

時賢들의 血證을 論한 것이 많아 이 書에 影響을 주었으나, 오직 《內經》과 《難經》, 仲景의 書를 從하여 探源하여 發揮하였고 間或 한 두가지가 暗合하는 것은 採用하여 唐 以下の 醫家들이 이루지 못한 바를 補充하였다. 그러나 血證에 대하여 專門的으로 論한 著書가 없으니 本書가 條分을 상세히 하고 精詳을 求하고자 노력하는 過程에서 간혹 煩文이나 冗者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意가 明顯히 合하는 것은 消去하지는 않았다.

이 書는 血證에 대하여 論한 것이다. 陰陽水火氣血論에서는 水火氣血間의 相互 維系的인 作用과 變化를 強調하였다. 血證의 病機方面에서는 臟腑의 서로 다른 特性和 症狀를 重視하였다. 또한 血證의 治療方面에서는 止血, 消瘀, 寧血, 補血의 治血 四大綱을 提出하였다. 그 外에 方藥의 選用上이나 辨證論治에 독특한 特色이 나타나 있다.

이 冊의 最大의 特色은 實用性이 強하다는 것이며 血證의 研究中에 方書를 便覽하고 親히 本人이 實踐함으로 因하여 대단히 많은 經驗談이 나타나 있다. 그의 序에서 “失血의 證을 일일이 發明하여 或 古人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펴고, 或은 前賢의 未備한 바를 補하여 理致가 足하고 方이 效果가 있게 하였으며, 影響의 이야기가 되지않게 노력하였다.(將失血之證精微奧義 一一發明 或伸古人所欲言 或補前賢所未備 務救理足方效 不爲影響之談)”이라 하였으니 이것으로 그의 思想을 엿볼 수 있다. 즉 《血證論》 一書는 前人の 經驗과 理論에 基礎를 두고 자기의 實踐 體會한 것이 綜合總結되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血證의 治療에 具體的인 指導의 意義가 있고 또한 血證의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 ④ 本草問答

《本草問答》은 總二卷으로 本草의 形色氣味를 爲主로 總括하여 說明하였다. 이 書에도 藥物을 說明함에 있어서 西醫의 理論을 兼하여 說明하였다. 그의 序文에 이르기를 “晉唐 以後에 千起百出하여 綱目에 極致를 이루었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五色에 眩惑되게 하였다. 三家가 深奧를 主力하여 救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義를 가리는 것이 많고, 徐靈泰가 冠絶一時하고 經旨에 頗合였으나 哀惜하게도 그 시대에 西人の 說이 없어 相互 證明하여 本經을 註釋할 수가 없었다. …… 西醫에 博通하여 黃炎 仲景의 書와 參合하여 至當함을 折衷하였다.”라 하였다. 그러나 唐氏는 항상 重中輕西를 主張하여 本草를 說明함에 있어서 各各 本草의 形象과 氣味, 性情을 더욱 重要視하였다.

그리하여 上卷에서는 形象과 產地에 따른 本草의 特性, 五味, 五色에 따른 作用, 五行의 性格과 五味의 關係 등을 說明하였고, 下卷에서는 藥劑의 炮製와 六

氣와 內傷, 鬱 등의 原因에 따라 使用하는 藥物들을 相互 比較說明하였다.

本書가 內容이 비록 簡潔하고 적은 分量이나 本草의 大綱을 자세히 하였으므로 後學들이 本草를 入門할 때 基本書가 될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이르기를 “此爲辨藥眞性起見이니 凡顯然易明하며 確切不移하며 精妙無比者를 一一論定하니 人知此理면 則眞知此藥라 …… 此倦 非本草專書라도 而本草精義 皆具於此矣라”라 하였다. 그리고 다른 書籍에 對하여 서로 一長一短이 있으므로 本書를 綜으로하여 諸書를 閱覽하면 얻음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 ⑤ 醫易通說

《醫易通說》은 唐宗海의 生前에는 冊으로 나오지 못하고 宣統 2年(1910年)에 처음으로 文字로 찍혀 文倫書에서 《中西匯通醫書六種》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冊中에 있는 “男守潛校”라는 標題가 있는데, 守潛按語라는 다섯가지 규칙, 그리고 모두 331字의 글자와 그림이 한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唐宗海의 아들 唐祖鑑(字는 鏡民, 또는 守潛이라 한다)가 校正을 다시하여 붙인 것이다.

1915년에는 또 上海千頃堂石印本에 冊名이 《醫易通論》이라는 上卷과 《醫易詳解》의 下卷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男守潛校”라는 標題가 없고, 또 守潛按語한 痕迹이 없어서 아들인 唐祖鑑이 校正을 보기 前의 原稿일 可能性이 있다.

文倫本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매우 드물고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에서나 볼 수 있고, 또 四川省 圖書館과 北京中醫學院 圖書館에 版本이 있을 뿐이다.

千頃堂本은 매우 오래동안 傳해져서 지금은 少數의 省市에 보관되어져 그 다음은 文倫本을 근본으로 千頃堂本을 比較하여 가며 校註하고 《周易》이나 《內經》 등을 널리 훑어 보아서 그 錯誤된 點을 百여 곳이나 더 고치게 되었다. 活字가 잘못 찍힌 곳(已를 己로, 問을 問으로)을 찾는 外에 說明이 不足한 곳에서는 說明을 보태기도 하였다.

本書는 醫의 根本 原理가 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意譯의 相通되는 面을 쉬우면서도 자세히 說明하였다. 그는 이르기를 “人身의 臟腑가 天地陰陽에 根本을 두었으니 天地陰陽을 밝혀 펼치매 易이 없이는 아니됨을 알지 못한다.(不知人身의 臟腑 本于天地陰陽하여 而發明天地者는 莫略于易)”라 하였고, 또한 西洋의 科學技術도 그 原理가 易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비록 최근의 西洋에서 나오는 算, 量, 光, 電, 火, 熱, 汽機製造를 窺則하면 모두가 精巧하고 奇異함이 아닌 것이 없으나 그 理致를 좇아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모두 易에 갖추어져 있다.(雖近出西學하니 窺則算 量 光 電 火 熱 汽機製造하면 無不精奇나 研推究其理면 一皆具於易)”라 하였다.

그리하여 本書를 씀에 “오직 易道에 있어서 醫理에 符合하는 것이 나타남이 있으면 반드시 引用하여 펼치니 醫學의 源을 探究하여 易學으로 引緒하였다.(惟于 易道見有合于醫理者 必引伸之 爲醫學探源 爲易學而 引緒)”고 하였다.

⑥ 痢證三字訣

本書는 陳修園醫書 五十種內에 編入되어 있다. 이 書에서 唐은 痢證에 對하여 “痢證之由는 不責脾하고 而責肝肺라. 蓋肝過生火면 則熱氣不退하여 肺氣가 不清하고 濕亦不化하여 與熱과 相蒸蘊하여 結血氣於三焦腸胃之間하니 釀成腐穢膠粘之汁하여 則成痢라. 肝迫注 故로 下泄하고, 肺는 收攝하니 故로 壅塞하여 逼迫艱塞而成裏急後重之狀이라 白痢는 祇是氣分之熱이요 紅痢는 則入血分이라 治白痢는 主清肺氣하니 輕則銀菊散 …… 治紅痢는 主肝血하니 用白頭翁湯하여 大瀉肝火하면 火清血靜하여 則紅痢自止라.”라 하였다. 비록 이 書가 작으나 痢證을 治하는 準繩이 된다.

2. 唐宗海의 學術思想

1) 唐宗海의 中西匯通思想

唐氏가 主張한 中西匯通의 思想은 두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一種의 眞善眞美의 醫學을 建立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近代에 西方醫學이 廣範圍하게 밀려들어옴으로서 中醫學界의 많은 人士들은 當時에 이미 西方醫學의 衝擊을 받고 새로운 歷史的 條件아래에서 中醫學을 發展시킬 새로운 方法에 對하여 深討하기 시작하였다. 唐宗海는 그 中에서 比較的 일찍 이러한 思考를 가진 醫學家의 하나이다. 그는 《醫經精義敘》에서 “무릇 西醫가 처음 出함에 周詳하지 않고, 中醫는 오래 轉播되어 錯誤가 많다. 이때에 醫道를 바로 잡지 않으면 生民을 해침이 많을 것이다. 내가(唐宗海) 薄한 材로 古今의 大變局의 時期를 맞아 一手一足を 스스로 살펴보니 조금도 中外를 扶持할 수 없고 오직 醫道가 嘗三致意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靈樞》와 《素問》 등 諸經을 摘出하여 그 要義를 記錄하고 兼하여 中西의 說로 解釋하였으며 疆域異同의 見解가 없게 하고 다만 折衷하여 하나의 理致로 歸一되게 하였다. …… 하여금 中外가 交泰同登하고 熙皞雍和의 蕃盛이 있게 하면 眞實로 眞美眞善일 것이다. 醫는 작은 것이다.(蓋西醫初出에 未盡周詳하고 中醫는 沿訛하여 率多錯誤라. 不及此時釐正醫道면 貽害生民이 不知凡凡이라. 余以菲材로 值古今大變局時에 自願一手一足 毫不能扶持中外하고 惟醫道嘗三致意라 因摘靈素諸經하여 錄其要義하고 兼中西之說로 解之하여 不存疆域異同之見하며 但求折衷歸于一是라. …… 俾中外交泰同登熙皞雍和之盛이면 則誠眞善眞美矣라 醫其小焉者也라.)”라 하여 中西匯通의 主觀을 主張하였다.

둘째로 中西의 醫學이 原理의 相通한다고 認識하였다. 唐은 中西醫學이 發

生한 地域이 비록 다르고 說明하는 方法 또한 다르지만 다만 그 原理에서는 相通한다고 認識하였다. 그는《醫經精義·人身陰陽》에서 “西醫가 造化主가 群黎를 惠育한다하는데 造化主라는 것은 卽 天地의 神으로 中國人이 天地를 本하여 生한다는 것과 은연히 合하니 다만 言語와 文字가 약간 다를 뿐인 것이다.(西醫謂造化主 惠育群黎 所謂造化主 卽天地之神也 與中國人本天地之中以生之義 不謀而合 但言語文字 略不同이라.)”하였다. 또한 〈氣血所生篇〉에서는 “西醫가 이르기를 心에 出血管이 있어 血을 導出시키고, 또 回血管이 있어 血을 導入한다하니 西醫는 管이라하고 中醫는 脈이라 하여 두 가지이나 하나인 것이다.(西醫謂心有出血管 導出血 又有回血管 道血入 西醫名管 中醫名脈 二而一也)”라 하였고, 또한 〈臟腑之管篇〉에서는 “西醫에 苦膽汁은 이내 肝血에서 生한다 하고, 中醫舊說에서는 모두 膽이 相火를 부리니 이내 肝木에서 生한 氣라 하니 살펴보면 이 氣가 이내 이 汁이니 두 說이 원래 어긋나지 않는다.(西醫에 言苦膽汁 乃肝血所生 中國舊說 皆謂膽司相火 乃肝木所生之氣 究之有是氣 乃有是汁 二設原不相悖)”라 하였다.

以上과 같이 唐氏의 中西匯通思想은 積極의이며 歷史的 潮流와 符合된 面이 많다. 다만 구체적인 中西匯通思想을 進行시켜 나가는 過程中에서 그는 中醫學을 守護하는 것을 目的으로 出發하여 西醫學으로 中醫學을 印證하는 것을 重要하게 여겼으므로 中醫가 西醫보다 高明함을 證明하려 하였고, 심지어는 西醫의 生理解剖學的인 知識이 《內經》의 範疇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重中輕西의 思想과 西醫學을 賤視하는 表現을 하기도 하였다. 그의 著作中에서 항상 西醫 理論으로 中醫學 理論을 印證하였다. 그러나 西醫가 中醫의 先進性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醫經精義·臟腑之官》에서 “西醫에 이르기를 사람의 才智는 腦髓에서 出하고 사람의 筋力은 腦氣筋에서 出한다 하나 腦髓가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 알지 못하였다. ……西醫는 髓를 論한것은 많으나 髓를 治하는 法은 적으니 髓가 腎의 所生임을 알지 못하여 그 施治가 없었던 것이다.(西醫云 人之才智 均出于腦髓 人之筋力 均出于腦氣筋 究問腦髓何物 則西醫不知也 西醫論髓之法多 而治髓之法少 以不知髓是腎所生 是以無從施治也)”라 하였다. 《本草問答》에서는 西醫學의 解剖學과 實驗方法이 中醫學에 비해 先進的이지 못하다고 強調하였다. 그는 “近出한 西洋醫法은 剖視를 믿으나 中國의 古人은 臟腑를 보지 않고 託空으로 藥을 配하니 믿지 못하겠다한다. …… 答하기를 그렇지 않다. 西人이 醫法을 初暢함에 반드시 剖視를 하여 巴야흐로 臟腑를 알았으나 中國古聖은 五臟六腑의 名目を 確然히 定出하였으니 하필 이제 다시 剖解의 法을 쓰겠는가? …… 그러나 五臟六腑의 名目を 定出한 것은 실제 物體가 있는 것이니 실제로 臟腑를 보지 않은 者는 不能한 것이다. 어찌 古聖이 실제로 臟腑를 보지 않았

다 하는가? …… 또한 西洋의 剖視는 層所만을 알고 經脈을 모르며, 形迹만을 알고 그 氣化를 모르니 中國과 西醫가 相互 優劣이 있는 것이다. 古聖의 《內經》과 本經을 比較하여 보면 西洋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바인 것이다.(…… 乃近出西洋醫法 全憑剖視 謂中國古人未見臟腑 託空配藥 不足爲憑 …… 答曰 不然 西人 初創醫法故 必剖視하여 方知臟腑나 中國古聖은 定出五臟六腑諸名目이 瞭然朗著니 何必今日再用剖視之法 …… 然其定出五臟六腑之名目 而實有其物 非親見臟腑者不能 安得謂 古之聖人 未曾親見臟腑이나 …… 且西洋剖視 只知層折而不知經脈 只知形迹而不知氣化 與中國近醫 互有優劣 若與古聖內經本經較之 則西洋還不及矣.)”라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문기를 西人이 用藥을 할때는 全的으로 試驗을 믿으나, 中國은 다만 氣味로만 나누어 臟腑에 配屬시키며 試驗을 하지않으니 西法의 試驗하여 얻는 것만 못하다 하는데 그 說이 옳습니까? 答하기를 中國의 經典에 神農이 藥을 맛보고 形色氣味를 定하여 臟腑百病을 主治하는데 조금도 錯誤가 없으니 嗜藥이 試驗인 것이다. 歷代의 聖人들이 살펴 定한 것이 대개 이미 자세한데 어찌 이제 비로소 試驗하는가! (問曰 西人謂彼用藥 全憑試驗 中國但分氣味 而配臟腑 未能試驗不如西法試驗之爲得也 其設然歟? 答曰 中國經 神農嗜藥 定出形色氣味 主治臟腑百病絲毫不差 所謂嗜藥卽試驗也 歷聖人之審定 蓋已詳矣 豈待今日始言試驗哉)”라 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重中輕西의 思想과 厚古薄今의 歷史觀을 볼 수 있다.

以外에 唐氏는 臨床上에서 累積한 豊富한 經驗으로 血證의 治療에 精密하였다. 그의 著作인 《血證論》은 “實事實理 有憑有驗 或從古聖引伸 或從西法參得 信而有徵之設也 并非杜撰可比”라 하였다.

## 2) 血證에 대한 研究

### ① 氣血關係에 對하여

人身의 氣血은 各各 陰陽의 性質을 가지고 있어 서로 互根이 되어 形體의 健康狀態를 類推할 수 있다. 氣血이 失調되면 陰陽이 不和하여 諸病이 發生하게 된다. 그러므로 唐氏는 血證을 治하는 것을 論하기 前에 먼저 氣血의 相互關係를 闡述하여 各種 血證을 辨治하는데 基礎로 하였다.

#### (가) 氣血의 生成

唐氏는 人體의 一切 生理活動이 모두 陰陽 二氣의 끊임없는 運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陰陽은 水火이며 水火 또한 氣血을 化生하는 源이라고 認識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陰陽二字 卽是水火 水卽化氣 火卽化血”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水”는 주로 腎과 膀胱의 水를 가리킨다. 腎膀胱과 丹田이 모두 臍下에 같이 居하여 一身의 水精이 歸宿하는 곳이 되어 但 水가 스스로 氣로 化하지 못

하므로 肺가 天陽의 氣를 吸入하는 것을 빌려 心火를 이끌어 아래로 丹田에 交하게 하여 水臟과 水腑를 蒸發시켜 비로소 元氣와 胃氣가 化生되는 것이다. 所謂 이미 말한 “水則化氣”나 “人身의 氣가 臍下 丹田 氣海의 中에서 生한다.(人身之氣生于臍下丹田氣海之中)”라는 것은 氣가 만약 不足하면 水津이 上騰下輸하여 全身에 灌溉하지 못하게 되고, 水가 만약 停蓄하여 不化하게 되면 氣도 또한 鬱滯되어 不暢되어 百骸를 溫照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概括하면 “氣는 水에서 生하므로 能히 化水할 수 있고, 水가 氣로 化하니 역시 能히 病氣가 될 수 있다.(氣生于水即能化水水化于氣亦能病氣)”라 하겠다.

여기에서 말한 “火”는 주로 心火를 말하는 것으로 人體의 一切의 熱力の 源이다. 唐은 肢體를 溫暖하게 하고 機能을 活動하게 하는 것이 모두 熱力에 依賴하여 作用된다고 認識하였다. 脾胃가 이런 熱力の 推動아래서 水穀의 精華를 分化吸收하게 되고, 다시 心의 火化를 거쳐 血液으로 變生 시킨다. 그러나 火가 亢盛하지 않으면 能히 生血을 하지만 만약 心火가 太盛하면 生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血液을 耗散시키게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整理하면 “火는 心의 所主로서 血液을 化生하여 周身을 濡한다.(火者心之所主 化生血液 以濡周身)”와 “火化가 太過하면 오히려 그 化를 잃는다.(火化太過反失其化)”로 整理될 수 있다. 이것은 氣는 腎水에서 生하고 血은 心火에서 生함을 說明한 것이다. 心火가 下降하면 腎水가 氣로 化하며 腎陽이 上昇하면 水穀이 腐熟하며 心火가 能히 血을 化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心腎 二臟이 一陰一陽, 一升一降으로 相互 協助하여 作用을 끊임없이 하여 人身의 氣血의 生化가 繼續된다. 同時에 唐氏는 心腎升降의 樞軸이 脾胃에 있다고 認識하고 “血生于心火而 下藏于肝하며 氣生于腎水而 上注於肺하니 其間 運上下者는 脾也라”하였다. 이것은 李杲가 脾胃가 升降의 樞軸이 된다고 하는 論點과 같은 認識이다. 다만 李氏는 內傷을 闡發하는데에 重點을 두었으므로 脾陽의 升發方面에 偏重하였고 唐氏는 血證을 論述하는데에 重點을 두었으므로 脾陰의 滋降方面에도 함께 考慮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地域의 서로 다르기 때문도 있는 것이다.

#### (나) 氣血의 作用

氣와 血은 人體의 生活機能을 維持하는데에 重要한 物質로서 두가지가 相互依存하여 作用하니 氣에서 血을 分離하거나 血에서 氣를 分離하면 모두 그 固有의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 卽 血의 運行은 氣의 統率에 의해 이루어지고 氣의 貯藏과 溫照는 血의 濡潤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血液의 運行이 不息하면 全身의 各 部位에 輸布되어 營養을 供給하게 되고, 氣가 貯藏되면 人體의 正常的인 活動을 維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血이 運行하지 못하면 瘀血이 生하게 되고,

氣가 貯藏되지 않으면 燥氣나 浮氣가 된다. 瘀血과 燥氣, 浮氣는 모두가 病氣이다. 그러나 血이 瘀阻되는 根源은 氣의 不行에 있고, 氣가 貯藏 溫照되 않는 根源은 血이 濡潤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氣가 盛하거나 氣가 亂하면 迫血妄行이 되고, 血瘀나 血滯時에는 또한 氣가 鬱滯되는 것이다. 이것은 氣의 盛衰가 血에 影響을 미치고 血의 瘀阻가 氣에 影響을 미치는 것을 說明하는 것이다. 唐氏가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闡發한 것은 뛰어나다. 그는 “運血者即是氣, 守氣者即是血이라. 氣爲陽 氣盛卽爲火盛 血爲陰 血虛卽水虛”라 하였고 또한 이끄기를 “氣爲血之帥 血隨之而運行 血爲氣之守 氣得地而呈一 氣結卽血凝 氣虛卽血脫 氣迫卽血走”라 하였다. 이와같이 氣血의 相互影響으로 和한 卽 모두 和하고 病卽 모두 病이 되니 두가지가 다만 相得하고 相失하지 않는다.

## ② 血證의 病理變化

唐氏는 “平人之血은 暢行脈絡하여 充達肌膚 有通無滯 是謂順經, 爲順其經常之道也”라 하여 일단 血이 經을 順還하지 못하면 上으로 溢出하여 血證이 된다. 일상적인 證으로 매번 두가지의 情況이 있는데, 첫째는 血液이 體外로 溢出하는 것이요, 둘째는 血液이 內部로 溢하여 臟腑, 經絡, 腠理에 쌓이는 것이다. 前者는 吐血, 衄血, 嘔血 등이 있고, 後者는 各種의 瘀血, 蓄血 등과 같은 것이다. 血證의 病理은 매우 複雜하여 唐氏는 다음과 같은 方面으로 歸納하였다.

### (가) 氣逆과 血證의 病理과 血證과 氣火의 病理

氣는 血之帥로서 氣機가 冲和하면 血이 正常으로 脈絡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氣機가 不暢하면 血이 阻滯되고, 氣逆하여 上冲하게 되면 血이 常道를 벗어나 上溢하여 吐血, 衄血, 嘔血, 咳血 등 症이 發生된다. 故로 唐氏의 “氣迫則血走”의 說은 氣病이 오래되면 血證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吐血은 무릇 上吐의 證이나 모두 胃에 屬하니 “血雖非胃所主나 然同是吐證이니 安得不責之于胃”라 하는 것이다. 이것의 病機는 衝脈의 氣가 上逆하여 血이 上溢한 것이므로 唐氏는 調胃降氣를 治療原則으로 삼았다.

嘔血은 비록 吐血과 같이 口中에서 出하지만 그 病機는 肝膽의 火가 旺하여 疏泄機能이 失調되어 氣機가 逆亂한 所致이다.

咳血은 “肺主氣 咳者 氣病也 故로 咳血屬之于肺”라 하였다. 咳血의 病機는 虛實의 두가지가 있다. 實證은 外邪가 肺氣를 抑鬱하거나, 鬱이 오래되어 火로 化하여 脈絡을 灼傷하므로 失血이 되는 것이요, 虛證은 대부분이 肺의 津液이 不足하여 陰虛火動하고, 肺金이 清肅의 令을 잃어 咳血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虛實을 莫論하고 肺가 清肅을 잃어 氣機가 阻逆한 것과 關係가 있는 것이다.

### (나) 火熱熾盛하여 迫血妄行

火熱이 內盛하면 迫血妄行한다. 熱이 陽絡을 傷하면 衄血이 되고, 熱이 陰絡을 傷하면 下血을 하며, “陽明의 燥熱所致”는 目衄이 되고, 肝膽三焦의 相火가 內動하고 狹熱妄行하면 耳衄이 되고, 胃火가 上炎하고 血이 火를 따라 動하면 齒衄이 되고, 心火가 亢盛하고 熱이 迫하여 血이 出하면 舌衄이 된다. 同時에 火熱과 氣機의 阻逆의 關係는 密接하여 氣逆하면 쉽게 火로 變하니 唐氏가 말한 “氣盛即是 火盛”이다. 그러므로 그 治法은 瀉火降氣를 爲主로 한다.

#### (㉔) 瘀血과 血證

瘀血은 出血을 일으키는 하나의 要素가 되어 무릇 吐, 衄, 便, 漏 등의 各種 血證이 離經의 血으로서 瘀를 이루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瘀血이 內阻하면 다시 出血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唐氏는 “瘀血踞住則新血不能安行無恙 終必妄走而吐溢”이라 하였다. 이로서 血證에 消瘀를 重視하여 “凡血證 總以去瘀爲要”라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瘀血이 內阻하면 重한 새로운 吐溢出血하는 症이 發生할 뿐만아니라 遺患이 오래되어 其他의 疾病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運脈中 已動之血有不能復還故道者 上則着于背脊胸膈之間 下則着于脇肋少腹之際 着而不和 必見疼痛之證 或流注四肢 則爲腫痛 或滯於肌腠 則生寒熱 凡有所瘀 莫不壅塞 氣道 阻滯氣機 久則變爲骨蒸 乾血 癆瘵”가 그것이다.

瘀血方面에서 그는 “血塊爲瘀血, 清血非瘀, 黑色爲瘀 新血非瘀”의 舊說에 局限되어 있던 것에 對하여 사실은 “既離經之血 雖清血鮮血 亦是瘀血”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觀點도 研究해볼 價値가 있다.

#### (㉕) 臟腑와 血證의 病理

唐氏는 血證을 論述할때 臟腑病機關係를 重視하여 臟腑는 각기 主氣가 있고 各各의 經脈과 區分이 있는 故로 그 主病이 다르고 각기 見證도 다르다고 認識하였다.

心은 君主之官으로 生血의 原泉이고 神이 出하는 淵海인 것이다. 故로 血虛하면 神이 不安하여 怔忡이 되며, 火가 血을 瀆하면 懊憹가 되며, 神이 清明하지 못하면 虛煩不眠, 動悸驚惕이 되며, 水陰이 火를 克하여 心이 動悸하고, 血이 逆하여 心을 攻하여 昏迷 疼痛欲死의 症狀이 나타나고, 痰이 心으로 入하면 癲이 되고, 火가 心을 亂하면 狂이 된다. 以外에 心과 小腸이 表裏가 되어 만약 熱이 小腸으로 遺하면 小便이 赤澁하고, 火가 아래의 水와 交하지 못하면 神浮夢遺하며, 또한 心脈이 위로 咽喉를 狹하고 舌本에 絡하므로 實火가 上壅되면 喉痺가 되고, 虛火가 上升하면 舌強不能言의 症이 나타난다.

肝은 風木의 臟이 되어 藏血을 主하니 이 藏血을 하게 되는 것은 木氣가 沖和 調達되어 遏鬱하지 않고 血脈이 通暢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木이 鬱



하여 火가 되면 血이 不和하며, 火가 發하여 怒하면 血이 橫結하여 吐血, 錯經, 血痛 등 諸證이 있게 된다. 怒함이 太甚하면 狂하며, 火가 太甚하면 頰腫而青, 目赤頭痛하게 된다. 以外에도 肝은 魂을 藏하니 血이 肝을 養하지 못하면 火가 神을 擾하여 夢遺不寐하고, 肝은 筋을 主하니 癱瘓囊縮이 모두 肝病에 屬하는 것이다.

脾는 統血을 主하니 血의 上下運行은 全的으로 脾에 依存한다. 만약 脾陽이 虛하면 生血을 하지 못한다. 血虛津少하고 肺가 滋潤하는 機能을 하지 못하면 土가 金을 生하지 못한다.

肺는 五臟六腑의 華蓋가 되어 肺에 항상 津液이 있어 滋養되므로 金清火伏하게 된다. 만약 津液이 損傷을 받으면 口渴氣喘 癰痿咳嗽가 된다. 만약 金이 木을 制御하지 못하면 肝火가 旺하여 木이 盛하여 金을 乘하면 蒸熱咳嗽 吐血癆瘵가 된다. 以外에 만약 大腸에 熱이 遺하거나 津液이 毀損되면 大便이 困難하게 된다.

腎은 先天이 되어 精氣를 藏함을 主하고, 水臟이 된다. 水중에 陽을 涵하고 있어 元氣를 化生하고, 丹田에서 根結하여 안으로 呼吸을 主하고 膀胱으로 達하게 된다. 水가 充分하면 精血이 많다. 腎水가 毀虛하면 精血이 竭하고, 心腎이 不交하면 遺精失血하고, 만약 腎氣가 不調하면 水가 泛하여 痰이 되어 心을 凌하고 肺를 衝하여 水腫을 發하고 아울러 腹痛奔豚, 下利厥冷, 亡陽大汗, 元氣暴脫 등에 이르게 된다.

모든 臟腑經絡은 말은 바 血證에 對해 主하는 바가 있으며 각기 分別이 있으니 吐血은 대부분 病이 胃에 있고, 嘔血은 病이 肝에 있고, 咯血은 病이 대부분 腎에 있고, 역시 心에도 있다. 唾血은 病이 脾에 있고, 咳血은 肺에 있고, 鼻衄은 陰陽之脈이 傷하여 역시 肝과 關係가 있고, 耳衄에는 足少陽膽經이 傷한 것으로 肝氣와 小腸火와 관계가 있고, 齒衄은 胃脈이 傷한 것이며 역시 腎虛火旺으로 傷한 것이고, 舌衄은 心火나 胃火에 傷한 것이다. 이 血證을 治하는데에는 반드시 臟腑經絡을 辨證하여 錯誤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울러 醫師가 臟腑를 알지 못하면 病源을 分別하지 못하여 用藥에 方法이 없으니 어찌 病을 治할 수 있겠는가?(并醫不知臟腑 則病原莫辨 用藥無方 烏覩其能治病哉)”라 하였다.

### ③ 血證의 治療

#### (가) 治療原則

氣血은 人體內에서 相互 依存的으로 作用하니 만약 氣血의 失調로 이루어진 病은 마땅히 調和氣血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므로 唐氏는 血證을 治療함에 있어서 調氣와 和氣를 主要 原則으로 하고 和法을 兼하는 것을 血證을 治하는 第一의 法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唐은 “表病은 肺氣를 和하고, 裏病은 肝氣를 和하며,

또한 脾胃의 氣를 아울러 살피어 或은 陰을 補하여 陽을 和하고 陽을 損하여 陰을 和한다.(表則和肺氣,裏則和肝氣,而尤照顧脾胃之氣,或補陰以和陽,損陽以和陰)이라 하였다.

구체적인 施治에서는 病變에 따라 서로 다른 方法을 採用하였으나 대체로 調氣와 補氣로 나누어 질 수 있고, 調氣는 또한 降逆과 瀉實의 두 方面을 모두 包含한다. 무릇 氣逆에 屬하는 것은 降逆을 爲主로 한다. 그는 “治病之法 上者抑之 必使氣不上奔 斯血不上溢 降其肺氣 順其胃氣 納其腎氣 氣下則血下 血止而 氣亦平復”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비록 吐血을 說明한 것이지만 咳血, 咯血 등도 이 原則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咳血을 治療함에 있어서도 疏表하여 清肺를 하거나 滋陰하여 養肺를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肺氣로 하여금 清肅下行케 하여 “氣下則血下”의 目的에 이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止血의 治法이 비록 많으나 모두 降氣에 우선하지 않는다.(止血治法雖多 而總莫先于降氣)”라 하는 것이다.

氣實의 病變에 있어서는 瀉實을 爲主로 하여야 한다. 唐氏는 “氣盛則火盛”하므로 그 實을 瀉하면 火가 瀉하여야 火가 上炎하지 않아 血이 다시 上逆하지 않는다고 認識하였다. 大黃黃連瀉心湯을 吐血의 主方을 삼은 것도 火逆을 瀉하는 方法을 利用한 것이다.

氣虛로 因하여 統攝을 하지 못하는 病變에는 補氣의 方法을 使用하는데, 補氣의 方法에도 補虛와 升陷의 두 가지가 있다. 補虛는 脾氣를 培補하는 것을 爲主로 하는 것으로, 脾가 統血을 主하므로 脾氣가 健旺하면 스스로 血行을 統攝할 수 있다. 그러므로 脾虛하여 攝血하지 못하는 데에는 歸脾湯을 使用하고, 大虛하면 十全大補湯을 使用한 것이다.

升陷은 元氣를 升擧하는 것을 爲主로 하는데 무릇 元氣가 下陷하면 血이 氣를 따라 下하여 失血이 되므로 升陷의 方法을 使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唐은 “崩中이 비록 血病이나 實은 氣虛로 因한 것이다. 氣가 下陷하면 水가 따라 瀉하여 지니, 水가 血의 同伴者로서 氣가 行하면 水가 行하고 水가 行하면 血도 行하니 補氣의 藥으로서 그 水를 升하면 水升하면 血도 升하게 되는 것이니 補中益氣로 治療하는 것이다.(崩中雖是血病이나 而實則因氣虛也라 氣下陷則水隨以瀉하니 水爲血之侶로 氣行則水行하고 水行則血行하니 宜服補氣之藥以升其水하면 水升則血升矣라 補中益氣治之라)”라 한 것이다.

脾虛하여 統攝하지 못하는 것과 氣虛하여 下陷하는 것은 다른 點이 있다. 脾虛者는 上下의 失血病變이 모두 出現할 수 있으나, 氣虛下陷者는 다만 下竅의 出血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吐血, 咳血 등 上竅의 出血은 歸脾湯이나 養榮湯으로 治療한다고 하였고, 補中益氣湯은 겨우 下竅의 出血에만 使用하는 것이다.

(4) 治血의 四大原則

唐氏는 血證의 治療에 있어서 止血, 消瘀, 寧血, 補血의 네가지의 方法을 提示하고 이에 따라 方藥을 定하였다. 그 具體的인 內容은 아래와 같다.

㉑ 止血

血溢奔騰하여 吐血을 하는 傾向이 그치지 않을 때에는 妄妄 氣가 血을 따라 脫하게 된다. "이때에는 血의 原委를 究治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직 止血하는 것이 第一의 좋은 方法(此時血之原委 不暇究治 惟以止血爲第一良法)"이 된다. 止血은 다만 溢出된 血만을 그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重要한 것은 經脈中의 아직 溢出되지 않은 血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出血을 한 患者는 各 經脈中의 血液이 波動을 받아 勢를 따라 外로 出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經脈의 血을 止하게 하여 外溢하지 않게 하여야 비로소 止血의 目的에 到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所謂止血者는 卽謂此未曾溢出 仍可復達之血 止之使不溢出 則存得一分血 變保得一分命"이라 하였다. 出血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氣火逆上을 일으키니 止血에서 降氣止逆의 法이 가장 적당하니 氣逆하면 血이 스스로 그치니 瀉心湯을 主方으로 한다.

㉒ 消瘀

止血한 後에 그 經脈中에 이미 動한 血이 있으면 以前의 道로 돌아갈 수가 없어 或 四肢로 注하니 곧 腫痛하게 되며, 或 肌腠에 滯하면 寒熱을 生한다. 瘀血이 있으면 氣道를 壅滯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氣機를 阻滯하여 오래되면 變하여 骨蒸, 乾血, 癆瘵가 되어 人體에 有害하니 不可不 急히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外에 經途의 中에 만약 瘀血의 阻滯가 있으면 新血이 正常的으로 運行을 못하여 終乃에는 반드시 妄注하여 吐溢이 되는 故로 消瘀가 第二法 된다. 瘀血이 除去되면 新血이 生하니 그 主方은 花蕊石散으로 瘀血이 水로 化하여 下하니, 또한 五臟眞氣가 不動하여 去瘀의 妙藥이 된다. 花蕊石이 없으면 三七根, 鬱金, 桃仁, 牛膝, 醋炒大黃을 利用하면 빠른 效果가 있다.

㉓ 寧血

吐血이 그치면 瘀血 역시 消하나, 或 數日間이나 或 十數日間に 血이 다시 躁動하여 吐하는 者는 血이 不安하여 經脈에 미친 所致이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반드시 寧血의 方法을 使用하여야 하니 寧血의 法이 第三法이 된다. 寧血治法 역시 各種 動血의 原因을 分別하여 探究하여 施治하여야 한다. 例로 外感吐血이 그친 후 營衛가 不和하면 蓼蘇飲에 柴胡, 黃芩, 當歸, 白芍, 牡丹皮, 阿膠를 加하여 治한다. 胃經에 遺熱이 있고 氣燥血傷者는 犀角地黃湯에 白虎湯을 合하여 治療한다. 肺經이 燥하여 清和를 잃으면 清燥救肺湯으로 治한다. 肝經의 風火로 因하여

血이 不安定한 者는 逍遙散에 加減하여 治한다. 總括하면 證을 均히 나누어 治하는 것으로 唐氏는 그 中에서 調氣를 가장 重要시하여 “血之所以不安者는 皆由氣之不安故也라 寧氣即是寧血이라”라 하였다.

#### ㉔ 補血

邪氣가 모여 있는 곳엔 正氣가 반드시 虛하니 出血하게 되면 더욱 虛하여지므로 氣血을 收功하여야 한다. 補血法을 運用함에 있어서 역시 상세히 辨證施治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補肺胃를 가장 重要한 것으로 본다. 肺는 五臟의 華蓋로서 外로는 皮毛를 主하고 內로는 制節을 主하니 肺虛하면 津液이 枯竭되므로 辛字潤肺膏로 治한다. 脾胃는 後天之本이며, 氣血이 化生하는 原泉으로 脾가 統血을 主하여 上下周身四肢에 運行을 하게하니 五臟은 모두 脾로부터 氣를 받는다. 故로 補劑에 脾를 主하지 않는 것이 없다. 甘露飲, 清燥養榮湯, 攝氏養胃湯, 滋胃汁을 利用하여 治한다. 人蔘固本湯, 炙甘草湯에서 桂枝를 去하고 芍芍을 加하여 補脾하고, 或 人蔘養榮湯으로 養心하여 脾胃를 補하거나 歸脾湯으로 通治하여 氣血을 調補하고 後天을 培養하는 것을 爲主로 한다.

#### (ㄷ) 方藥의 運用

唐氏는 血證治療의 方藥의 運用에서 먼저 發病情況과 所屬臟器에 根據하여 方藥을 選擇하였다. 例를 들어 吐血은 胃에 屬므로 吐血病을 治療할 때에는 陽明을 爲主로 하여 大黃黃連瀉心湯을 使用하였다. 그는 이르기를 “方名瀉心 實則瀉胃 胃氣下泄 則心火有所消導 而胃中之熱氣亦不上壅 使氣順而血不逆矣”라 하였으니, 大黃 一味가 推陣致新으로 陽을 損하여 陰을 和하니 氣盛하거나 氣逆하여 出血을 일으키는 證에 마땅하다. 또한 腸風下血은 《內經》에서는 ‘久風’이라 하여 오래되면 邪氣가 下陷하니 治療時에는 반드시 內陷之邪를 上昇外達시켜야 하므로 葛根黃連黃芩湯을 主方으로 하여 和血疏散하는 藥物 卽 荊芥, 當歸, 柴胡의 類를 加하여 治療한다. 이것은 吐衄에는 반드시 降氣를 하고 下血에는 반드시 升擧하는 것을 治療原則으로 한다는 意味인 것이다.

以外에 發病의 原因과 臟器의 相互影響을 重要視 하였다. 그의 《血證論吐血門》中에서 瘀血로 不行하여 血이 그치지 않는데에 血腑逐瘀湯을 主方으로 하고, 享酒厚味로 因하여 된 것에는 白虎湯, 外感으로 因한 것은 麻黃人蔘芍藥湯 或 小柴胡湯, 瘟疫伏熱로 因한 것은 升降散이나 犀角地黃湯, 勞倦飲食으로, 脾를 傷한 것은 歸脾湯을 主方으로 하여 治療하였다. 만약 脾經虛火에 痰血이 있는데는 逍遙散에 寸冬, 藕節, 蒲黃을 加하여 使用하고, 肝經虛火에 痰血을 帶하는 것은 逍遙散에 山梔子, 五味子를 加하여 使用한다. 이러한 方藥의 運用은 後人이 血證을 治療하는데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④ 血證治의 各論

(가) 血上乾證治

血上乾하면 곧 出血이 上竅에 나타나는 것은 吐血, 嘔血, 咯血, 唾血, 咳血, 鼻衄, 齒衄, 舌衄 等等으로 臨床辨證治療 要點은 다음과 같다.

(㉑) 吐血

平人の 血은 脈絡을 暢行하여 肌膚를 充達하여 流通하고 無滯하니 이것을 循經이라 稱한다. 卽 經脈之道를 循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그道를 循하지 못하면 腸胃之間을 溢出하여 隨氣上逆하니 吐血이 된다. 吐血의 證의 病情에는 輕한 것도 있고 重한 것도 있다. 病情이 重한 者는 그 血이 올때 辟辟彈指하고 鹿鹿有聲하고 대부분이 胸痛이 있고 或 脇肋疼痛한다. 病情이 輕한 者는 곧 聲響이 없다. 그 中에는 肺로 오는 것이 있고, 肝으로 오는 것이 있다. 肺로 오는 것에 반드시 背痛이 있는 것은 肺는 華蓋로 背와 胸膈에 位置하여 血이 背脊으로 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氣迫血行하니 그 調和로움을 얻지 못한 故로 胸背痛하는데 마땅히 肺를 治하는 것을 爲主로 하여야 한다. 肝으로 오는 것은 兩脇疼痛이 많이 나타나는데 肝은 藏血之官으로 脇下에 位置하니 血이 脇肋으로 오는 것을 말미암으니 治肝해야한다. 肝肺는 血이 가는 길과 關係되는 것에 不過할 따름으로 實際로는 胃가 그것을 主하는 것에 말미암을 따름이다. 血의 歸宿은 血海에 있는데 衝脈이 血海이고 그 脈은 陰陽으로 나뉘니 陰陽을 治하는 것은 곧 治衝脈하는 것이다. 陰陽之氣는 下行이 循인데 만약 吐血을 하면 下行을 하는 原則을 잃는 것이니 마땅히 서둘러 胃를 調하여 氣로 하여금 循하게 하면 血이 止하는 故로 吐血을 治하는데에는 胃를 爲主로 하여야 한다. 그 外에 血이 胃中으로 들어가면 胃家實이 되는데 傷寒證의 胃에 燥屎가 있어서 된 胃家實하고는 같지 않고 단지 그 血이 胃에 積하니 역시 實證에 屬한다. 그래서 治療時에 있어서도 瀉邪脫實로 솔바닥의 땀나무를 빼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仲景의 瀉心湯을 主로 한다. 만약 血이 많은 者는 童便, 茅根을 加한다. 喘滿者는 杏仁, 厚朴을 加한다. 血虛者는 生地, 當歸를 加한다. 血脫로 이르러 歸根하지 못하는 者는 人蔘, 當歸, 五味子, 附片을 加한다. 寒熱이 있는 者는 柴胡, 生薑을 加하거나 或은 乾薑, 艾葉으로 佐를 삼는다. 總括하면 瀉心湯을 隨證加減하고, 靈活運用한다. 瀉心湯方을 瀉心이라 하는 것은 胃氣가 下泄하면 心火가 消導하는 바가 있으니 胃中之氣가 上逆하지 못하는 故로 氣循하면 血이 止한다. 唐氏가 특별히 大黃의 攻用을 感歎하여 “大黃一味 能推陣致新 而損陽和陰 非走下胃中之氣也 卽外而 經脈肌膚軀殼 凡屬氣于血分之中 治血有不和處 大黃之性 亦無不達 蓋其藥氣最盛 故로 能克而制之 使氣逆者 不敢不順 卽速下降之勢 又無有留之邪 令人多不敢用 惜哉”이것을 가르켜 吐血의 證은 實證에 屬하는 것이 十中에 六七은 되니 대부분이 火盛邪實하여 迫

血妄行할 때 補腎水로 平氣시켜야 하며 世上事情에 어둡다는 말처럼 補心血을 하면 火와 背가 되므로 治療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故로 오직 瀉火一法이 除暴安良하여 邪氣를 除去하고 正氣를 保存 可能케 한다.

吐血證은 虛寒에 屬하는 것이 十中 거의 一二는 된다. 虛證은 대부분이 出血太過로 因하니 坎에 傷하여 出血이 되면 血遲하고 氣 역시 遲하니 喘促昏潰, 神氣不續, 六脈細微, 虛浮散數의 危險한 證이 나타나니 당연히 獨參湯을 利用하여 氣를 保護하여 救하여야 氣가 不脫하게 하여 血도 不奔하게 된다. 寒證에 이르러서는 陽이 陰을 攝하지 못하여 陰血이 走溢하는 것이다. 그 證에는 반드시 手足清冷, 便溏遺溺, 脈細微遲澁, 面色慘白, 脣白淡和가 나타난다. 或 內寒外熱하고 실제로 眞寒假熱일때는 마땅히 甘草乾薑湯으로 主한다. 陽和로써 陰血이 運하게 하면 虛熱이 退하고 陰血이 스스로 지켜진다. 血이 陰汁에서 말미암으므로 剛燥한 藥劑는 忌한다. 그리고 陰寒이 甚한 者는 陽虛하여 攝血을 하지 못하니 乾薑, 附子를 利用한다. 上熱下寒에는 黃芩, 黃連, 乾薑, 附子를 같이 利用하여도 可能하다.

#### ㊦ 嘔血

嘔血과 吐血은 비록 口中에서 出하는 血은 같지만 區別이 있다. 吐血은 血이 口로 出하는 것이지만 出血하면서 소리가 없다. 嘔血은 出血하면서 소리가 있고 重하면 그 소리가 개구리 소리같고 輕하면 噦逆하는 것 같으니 모두 氣가 不暢하여 그렇다. 이러한 症狀의 情象을 보면 吐血은 輕하고 嘔血은 重하다. <臟腑論>에서 吐血은 病이 胃에 있고 嘔血은 病이 肝에 있다고 하였다. 대개 肝木의 氣는 脾土를 疏泄시키니 少陽 春生之氣는 胃中の 升清降濁에 依支하여 營衛의 轉樞가 되니 故로 嘔는 모두 肝膽의 氣가 上逆한 所致인 것이다. 血은 또한 肝의 所使로 嘔血의 證은 당연히 調肝을 爲主로 한다. 乾嘔 後에 嘔血하고 다시 乾嘔者는 少陽이 逆한 것이므로 大柴胡湯에 蒲黃, 丹皮, 桃仁, 當歸를 加하여 治한다. 肝膽相聯으로 膽病은 肝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丹梔逍遙散으로 治한다. 肝火橫逆으로 迫血하여 嘔出者는 우선 瀉火하여야 하니 當歸蘆薈丸에 丹皮, 蒲黃을 加하여 治한다. 血이 止한 後에 다시 逍遙散이 阿膠, 牡蠣, 香附하면 거두워 들이는 功이 있다. 平時에 嘔酸, 嘔苦한데 失血을 한 後에도 嚙시 吐酸苦者는 嘔酸은 濕熱이고, 嘔苦는 相火이니 左金丸에 다시 血分藥을 加하여 治한다. 이 두 藥이 辛苦降泄로 治血藥中の 引導하는 效果가 크다. 嘔血이 그친 後에 肝膽火旺하고 血虛煩燥하고, 脇赤口渴, 胸脇刺痛, 發熱盜汗, 魂夢不安하는 것은 相火가 內積되어 骨蒸, 癆瘵를 發하려는 것이니 柴胡清骨散으로 加減하여 治한다. 血證 嘔를 帶한 者는 단지 그 血을 治하니 血止하면 嘔도 자연히 그친다. 嘔證에

帶血 者는 回食病과 같이 嘔後에 血水가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胃逆血枯한 것으로 難治의 證으로 大半夏湯, 麥門冬湯으로 治하고 玉女煎에 蒲黃, 麻仁을 加한 것도 역시 效果가 있다.

㉔ 咯血

咯血은 痰中에 血絲를 帶한 것이다. 病이 心에서 出하니 心經이 火旺하여 血脈이 安定을 얻지 못하여 血絲가 出하여 피를 이루니 導赤散에 黃連, 丹皮, 血餘, 蒲黃, 天冬, 麥冬, 貝母, 茯苓을 加하여 治한다. 咯血은 또한 腎에서도 出하는데 腎經의 氣가 膀胱에서 不化하여 反對로 膀胱의 水가 上行을 하여 痰이 되니 膀胱은 胞의 室이니 膀胱의 水가 火를 따라 上으로 올라가 胞中の 血을 따라서 올라가게 하니 水病으로 胞血이 連累된 證이 된다. 猪苓湯으로 膀胱의 水를 化하고 兼하여 血을 滋하니 가장 合當한 治法이다. 다시 丹皮, 蒲黃을 加하여 血分을 清하게 한다. 또한 六味地黃湯에 旋覆花, 五味子, 天門冬, 麥門冬, 蒲黃을 加하여 用하기도 한다. 火가 盛한 者는 大補陰丸에 海粉, 牛膝, 茯苓, 丹皮, 蛤蚧를 加한다.

咯血이 心, 腎으로 말미암아 오지만 肺와 有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肺의 痰을 治하는 것은 역시 咯血을 治하는 빠른 法이다. 太平丸은 治肺의 通劑이며, 紫宛散, 保和湯도 모두 肺痰을 滌除하는 것으로 補瀉를 兼한 것이다.

㉕ 唾血

血이 唾液을 따라서 出하는 것을 唾血이라 한다. 脾陰이 傷을 받은 것이 가장 重要한 原因이다. 만약 脾經의 火가 重되어 脣口乾燥, 大便秘訣, 脈滑實한 것은 마땅히 瀉心湯에 當歸, 生地, 白芍, 花粉, 麥冬, 枳殼, 蒲黃, 甘草를 加하여 用한다. 만약 脾經의 陰虛로 脈細數, 津液枯, 血不寧하는 것은 麥冬養榮湯에 蒲黃, 阿膠를 加하여 用한다. 만약 七情이 鬱滯하여 唾血이 되는 것에는 歸脾湯으로 心脾를 調補하고, 다시 阿膠, 柴胡, 炒梔子, 血余를 加하여서 鬱火를 解하고, 血分을 清하게 한다. 만약 肝氣가 脾를 막으면 逍遙散으로 主하도록 한다.

또한 이른 아침에 唾血이 있고 일찌기 비린내가 나고, 血液이 입안 가득하고, 唾出하면 맑아지며, 그 다음날 새벽만 되면 되면 또 唾하는 것은 드러누워 있는 後에 血이 歸經하지 못한 것이 口中으로 溢出한 것인데 實證은 肝이 藏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으니, 반드시 頭痛, 口渴, 便閉之證이 있으니 當歸蘆薈丸으로 治한다. 虛證은 脾不統血로 말미암으니 반드시 怔忡, 虛煩不眠 등證이 있으니, 歸脾湯에 丹皮, 山梔, 棕炭, 五味子를 加하여 治한다.

㉖ 咳血

肺는 氣를 主하니 咳嗽는 氣病이고, 咳血은 역시 肺에 屬한다. 咳血이 되는 原

因은 두 種이 있는데 하나는 外感으로 因한 것이요, 하나는 內傷으로 因한 것이다. 肺主氣로 말미암아 外合皮毛하고, 鼻에 開竅하니 外感의 邪가 表로 侵犯하여 肺氣가 不宣하니 오히려 內壅되어 喉間에서 噎出하여 咳血을 發한다. 이것은 外因으로 된 病이다. 肺는 治節을 主로 하니 治節하여 下行하면 氣順하고, 呼吸이 安靜되는데 만약 治節이 行하지 못하면 氣逆되어 咳血이 되니 이것은 內因으로 된 病이다. 外因의 咳는 邪氣가 鬱遏된 것에 不過하여 肺氣가 不宣되어 肺의 本體에 지나친 傷을 주지는 않아서 比較的 病이 輕하다. 內因의 咳血은 治節이 不行하니 肺中の 陰液이 不足하고, 被火가 刑克하여 肺氣上逆하여 咳血하게 되는 것으로 病이 比較的 重하다. 咳血의 病情에는 虛實의 區分이 있으니, 實證인 경우에 大部分이 外感傷肺, 或은 胃中鬱熱 或은 怒火上逆으로 咳血에 이른다. 虛症은 大部分이 陰虛火旺 或은 思慮傷脾, 心經虛火, 或은 腎經陰虛陽浮로 因해 咳血에 이른다. 그 外에 先咳하고, 後에 失血, 或은 失血한 後에 咳, 或은 잠시 咳한 後에 낮고, 或은 久咳不止하는 등등 種類마다 같지 않으니 臨床에서 반드시 詳細히 分析하여 辨證論治하여야 한다.

外感風寒은 實證에 屬하니 眞實로 表散해야 하는데 前人이 만든 法을 역시 採用하여도 되나, 단지 解表를 할 때 氣分の 藥만 使用할 것이 아니라 血分을 兼하여 考慮해야 마땅하다. 解表에 辛溫한 藥을 부질없이 用하지 말고 動氣 動血의 危害를 考慮하여 오직 小柴胡湯 한가지 方으로 三焦를 通利하고, 治肺調肝, 和營衛하여 良方이 되니 血證에 兼하여 表가 있으면 가장 妥當한 것이 된다. 만약 紫蘇, 荊芥, 當歸, 白芍, 丹皮, 杏仁을 加하면 氣分 血分 양쪽을 兼하여 治하는 것이니 和表清裏하는 妙가 있다. 火가 重하여 大便秘結者는 酒大黃을 加하는 것이 適當하다. 胸脇腰背, 刺痛脹滿者는 瘀血이 있는 것이니 다시 桃仁, 紅花를 加한다. 病情이 비교적 輕한 것은 止嗽散 같은 輕劑로 調理를 한다. 止血에는 蒲黃, 藕節을 加한다. 清火에는 黃芩, 麥冬을 加한다. 降痰에는 貝母, 茯苓을 加한다. 降氣에는 杏仁, 枳殼을 加한다. 補血에는 當歸, 生地를 加한다.

咳血 虛症은 大部分이 肺中の 津液이 傷을 받아 陰虛火動하여 肺가 清肅下降의 法則을 喪失하여 氣逆하게 되어 咳하게 되고, 火動失血이 가장 重證이다. 이러한 病은 論할 것도 없이 寒이 오래되어 火로 變하고, 火가 鬱滯되어 寒과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모두 保和湯으로 治한다. 이 處方은 清肺滌痰하고 止血 調氣하는 最高로 適當한 것이다. 肺中陰虛하여 本臟이 氣燥하고 生痰帶血하여 癆咳를 發하니 失血된 後에 肺燥하여 癆가 되고 痰凝氣鬱하고 久咳가 不止하게 된다. 이것은 內傷으로 因하여 發生한 것으로 清燥救肺湯을 用하여 甘涼滋潤하여 胃陰을 補하고 肺金을 生하여 肺金이 清潤하면 火가 저질로 降하고 痰이 저질로 除去되



니 氣도 자연히 調節되고 咳도 자연히 그친다. 만약 血枯하면 生地를 加한다. 火甚하면 犀角을 加한다. 痰多하면 貝母를 加한다. 帶血에는 蒲黃을 加한다.

肺中の 痰飲實熱하고, 氣機가 壅逆되어 咳血者는 瀉肺丸을 用하여 主하니, 이 處方은 清泄破下하는 力量이 最大로, 만약 實證에 屬하면 이것으로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無痰無血하고 단지 氣滯하여 咳를 하면 이것은 失血家로 眞陰이 虛損되어 肺氣가 收斂하지 못하고, 腎氣가 納하지 못한 所致이니 그 病은 重하고 가장 難治이다. 肺氣不斂에 屬하는 者는 清燥救肺湯에 百合, 五味, 琥珀, 鐘乳石을 加하여 肺金을 鎮補하여 肺金이 營養을 받아 다시 收斂하게 하여 氣平하면 咳하지 않는다. 腎不納氣에 屬하는 것은 六味丸에 沈香, 五味子, 麥冬, 磁石을 加하여 滋補鎮納하게 하여 氣가 吸引되어 腎으로 歸하도록 하여 腎水가 滋生하면 또한 그 氣가 封固하여 咳가 저절로 그치게 한다. 그리하여 肺金虛寒이 있으면 形寒하여 痰唾가 많고 上氣失血하는 것이니, 비록 極少數에 屬하나 알지 않으면 안된다. 前人은 甘草乾薑湯으로 溫하게 하고, 六君子湯으로 主하며, 다시 當歸, 白芍, 炮薑, 五味를 加하면 止咳止血에 모두 宜當하다. 만약 脾經이 虛寒하여 痰動하여 咳嗽者도 역시 이 方이 宜當하다.

㉔ 鼻衄

鼻는 肺竅로 鼻根은 太陽經脈과 相接하고, 鼻孔은 陽明經脈과 下夾하여 肺로 內通하여 呼吸을 하게 하니 清虛의 道요, 天氣相通의 門戶이다. 通하여야 되며 塞하면 안되고, 息하여야 하며 喘하면 안되고, 氣를 出하여야 하지 血을 出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鼻衄者는 熱傷陽絡으로 熱이 太陽, 陽明脈絡을 傷하게 한 것이다.

太陽經이 傷하여 衄하는 것은 반드시 治肺를 爲主로 하여 清肺瀉火하여 肺氣를 疎利하여 肺氣가 清하면 太陽의 道가 자연히 清하여 衄이 되지 않는다. 風寒이 外部로 들어와 皮毛가 洒滌하고 無汗者는 麻黃人蔘芍藥湯으로 治한다. 肺火가 壅盛하여 頭昏痛氣喘하고, 脈滑大數實者는 人蔘救肺湯에 荊芥, 粉葛, 蒲黃, 茅根, 生地, 童便을 加하고, 久衄血者는 久衄血로 虛하니 丹溪止衄散에 茅花, 黃芩, 荊芥, 杏仁을 加한다.

陽明經이 傷하여 衄하는 것은 原因이 비록 많지만 모두 陽明燥金이 邪와 合하여 衄血이 된 것이다. 治法 역시 平燥氣를 爲主로 한다. 方은 瀉心湯에 生地, 花粉, 枳殼, 白芍, 甘草를 加하여 用한다. 或은 犀角地黃湯에 黃芩, 升麻를 加하여 熱毒을 解毒하고, 鼻衄이 그친 後에는 玉女煎에 蒲黃으로 滋降시키고, 다시 甘露飲을 多服하여 營養한다. 梨膏, 藕汁, 蘿服汁, 白密 등을 多飲하는 것도 모두 病에 서로 맞는다.

## ④ 齒衄

齒는 비록 腎에 屬하나 滿口之中은 胃에 屬하니 口는 이에 胃의 門戶이고, 齒齲은 더욱 胃經脈絡을 도는 故로 衄血은 胃火가 上炎하여 血隨火動하니 治法은 清裏胃火하는 것으로 主를 삼는다. 胃中實火로 口渴齲腫하고, 發熱便閉하고, 脈洪數者는 通脾瀉胃湯에 蒲黃, 藕節을 加하여 治한다. 大便不閉하면 下利를 하지 않아도 清涼한 것으로 解하니 犀角地黃湯에 豆根, 貫仲, 枳殼, 蘿服汁을 加한다. 胃中虛火로 口渴齲糜하고, 그 脈이 細數하며 血不足者는 甘露飲에 蒲黃을 加하여 止衄하고, 玉女煎으로 胃火를 끌어서 下行하게 하고, 兼하여 滋陰한다. 역시 腎虛火旺이 있으면 齒가 갈라지고, 血이 스며나오니 잠이 들면 血이 흐르고, 깨면 그치는 것은 모두 陰虛로 血이 收藏을 못하기 때문이니 六味地黃湯에 牛膝, 二冬, 骨碎補, 蒲黃으로 다스린다. 上盛下虛하여 火가 歸元하지 못하여 尺脈微弱하고, 寸脈浮大者는 桂附를 加하여 補腎하여 引火歸元하게 한다.

## (나) 血下泄證治

血下泄은 下竅로 出血이 나타나는 것으로 便血, 尿血 등과 같은 것으로 變治要點 및 方藥은 아래와 같다.

## ⑦ 便血

便血은 腸病으로 그 중에 中氣虛陷하여 濕熱下注하는 것과 肺經遺熱로 말미암아 大腸을 傷한 것이 있으며, 腎經陰虛로 말미암아 潤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며, 肝經血熱로 말미암아 大腸으로 滲漏한 것도 있다. 大腸과 각 臟腑가 서로 連結된 意義는 단지 病의 유래일 따름으로 各臟으로부터 生하여 病은 腸에 存在하게 되는 것이며, 各臟으로는 돌아가지 아니하니 반드시 우선 腸을 治하여 標를 除去하고, 後에 各臟을 治하여 그 原因을 깨끗이 하여야 病이 낮고, 永遠히 다시 再發하지 않는다.

先便後血者는 遠血이고, 先血後便者는 近血로 《金匱要略》에서 벌써 分類를 하였다. 但 近血中에도 二證이 있다. 하나는 腸毒下血이고, 하나는 腸風下血이다. 腸毒下血은 肛門腫硬하고 疼痛流血하여 痔漏와 類似하다. 그러므로 만약 大腫大痛하고, 大便不通하는 것은 解毒湯을 用한다. 大便秘結하고 腫痛不甚者는 重劑를 쓰지 않고 四物湯에 地榆, 荊芥, 槐角, 丹皮, 黃芩, 土茯苓, 地膚子, 苡仁, 檳榔을 加하여 治한다. 臟毒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반드시 肝胃를 治하여야 하니 血은 肝의 所使이고, 腸은 胃의 關이기 때문이다. 清胃散에 金銀花, 土茯苓, 防己, 黃栢, 薏苡仁, 車前子로 升清濁降하여 陽明의 濕熱을 다시 下注하지 못하게 하니 臟毒이 자연히 낮는다. 治肝에는 龍膽瀉肝湯, 逍遙散이 適當하다.

腸風下血은 肛門이 不痛하고 겨우 出血이 있으며 血이 대부분 淸하게 나온다. 그러나 臟毒下血은 그 血이 대부분 濁하다. 治療는 모두 淸火涼血을 爲主로 하니 火淸血寧하면 風도 역시 자연히 멈추게 된다. 方은 槐角丸로 治한다. 단지 主意할 것은 外風夾熱로 因한 것은 반드시 開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治病之法은 高者는 抑之하고 下者는 舉之니 吐血에 所以降氣하고 下血에 所以必升舉也다. 升舉一法이 非第補中益氣之謂요 升提疏發이 皆是升舉라” 하여 葛根黃芩黃連湯에 當歸, 柴胡, 白芍藥, 槐花, 地榆, 桔梗을 加하여 治한다. 만약 肝經風熱이 內扇하여 下血하는 者는 반드시 脇腹脹滿하고 口苦多怒가 나타나고, 或은 寒熱을 兼하는 수도 있으니 瀉靑丸을 加減하여 治한다.

遠血은 옛날에는 陰結下血이라 이르고 黃土湯으로 主하였다. 또한 理中湯에 當歸를 加한 것이나, 或 歸脾丸, 或은 補中益氣湯을 用한 것은 모두 具體的인 病情과 氣機出入에 根據하여 用한 것이다.

#### ㊸ 尿血

膀胱과 血室은 그 領域이 아울러 居하니 熱入血室한 卽 蓄血이 되며, 熱結膀胱 卽 尿血이 된다. 尿는 水分의 病이니 마르면 血分이 動하여 血室과 아울러 居함으로 서로 聯關이 되어 累를 끼친다. 그 病으로 말미암아 內外二因이 있고, 病情上에도 또한 虛實의 두 가지가 있다.

外因은 대부분이 太陽陽明의 傳經의 熱이 下焦에 結하여 된다. 症은 寒熱, 口渴, 腹滿, 小便不利, 尿血疼痛하는 것이 몸에 나타나니 桃仁承氣湯으로 治한다. 小柴胡湯에 桃仁, 丹皮, 牛膝을 加하여 역시 治한다.

內因은 心經의 遺熱이 小腸으로 가고 肝經의 遺熱이 血室로 가는 것이다. 症이 淋秘割痛, 小便点滴疼痛하는 것은 赤淋으로 淸熱시킨다. 淸心經하는 것에는 導赤散에 炒梔子, 連翹, 丹皮, 牛膝을 加하여 利用한다. 治肝經하는 것에는 龍膽瀉肝湯에 桃仁, 丹皮, 牛膝, 鬱金을 加하여 使用한다. 治心肝했는데 낫지 않는 것은 당연히 肺를 兼하여 治하여야 하니 肺는 水의 上源으로 金이 淸하면 水가 淸하고, 水가 寧하면 血이 寧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症狀과 原因으로 말미암아 水病은 血에 미치니 故로 治水하는 것은 곧 治血을 하는 것이니 人蔘瀉肺湯에 大黃을 去하고 苦蔘을 加하여 使用하여 治한다. 淸燥救肺湯에 藕節, 蒲黃을 加한 것도 역시 治한다.

以上으로 結血之證으로 血尿를 出하는 것은 모두 淋漓不通의 象이 있는 것으로 尿血의 實證이다. 以外에도 오히려 虛症이 있으니 尿가 咳時에 出하는 것으로 尿가 殘留하고 滯碍感이 없는 것이다. 단지 淸熱滋虛하여야 마땅하고, 兼하여 止血의 藥을 用해야지 다시 降利를 行하면 않된다. 治하는 데는 四物湯을 加減하여

使用한다. 養肝涼血에는 丹皮, 山梔子, 柴胡, 阿膠를 加한다. 清心養血에는 黃連, 阿膠, 血餘를 加한다. 만약 脾氣가 虛寒하면 攝血을 못하고, 四肢清冷, 脈微遲, 面色暗淡하니 魚鱉膠, 黃芪, 人蔘, 艾葉, 黑薑, 甘草, 五味子を 加하여 治한다. 房勞傷腎하면 鹿角膠, 海螵蛸를 加한다.

#### (다) 血中瘀證治

血中瘀는 瘀血, 蓄血, 血蠱 등과 같은 것으로 病種과 病理變化的 範圍에 比較的 넓게 影響을 미쳤는데 證論을 좇아 論하지 못하여 아래에 瘀血의 辨證論治要點 및 方藥을 紹介하겠다.

唐氏는 離經之血과 周腎을 營養하는 血이 이미 서로 같지 않아서 좋은 血을 保存하지 못할 뿐 아니라 新血의 化生을 阻礙하는 故로 무릇 血證은 모두 去瘀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認識하였다. 사람들은 血槐가 瘀血이고 清血은 瘀血이 아니며 黑色은 瘀血이라고 認識하였으나 唐氏는 離經之血이 있으니 비록 清血 鮮血이라고도 瘀血이라고 하였다. 故로 吐衄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去瘀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以外에도 瘀血이 있으면 이내 瘀血의 證이 있으니 醫者는 마땅히 臨證治之하여 妨害할까 두려워 할 必要가 없다.

瘀血이 攻心하여 心痛眩暈, 神氣昏迷, 不省人事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產婦가 吐衄에 이르면 모두 危險한 症候이니 급히 血을 내려 心을 補하니 芎歸失笑散에 琥珀, 朱砂, 藿香을 加하여 治療한다. 或 芎歸湯으로 血竭을 調服하고 乳香 末도 역시 좋다.

瘀血이 乘肺하여 咳逆喘促, 鼻起烟煤, 口目黑色하는 것은 蔘蘇飲으로 補肺經한다. 이것은 모두 危急한 症候이니 무릇 吐血 卽時 죽는 것은 왕왕 血이 肺를 乘하여 氣道를 壅塞한 所致이다. 만약 瘀한 바를 去하니 葶藶大棗瀉肺湯에 蘇木, 蒲黃, 五靈脂, 童便을 加하여 治한다.

瘀血이 經絡臟腑의 사이에 있으면 周身疼痛하고, 氣의 往來를 가로막는 故로 阻礙하여 痛하니 通瘀하여 "通則不痛"하는 治法을 使用한다. 佛手散에 桃仁, 紅花, 血竭, 續斷, 秦芫, 柴胡, 竹茹, 甘草를 加하고 酒로 引導하여 治한다. 或 小柴胡湯에 當歸, 芍藥, 丹皮, 桃仁, 荊芥를 加하여 使用하면 더욱 內外의 通治가 된다.

瘀血이 上焦에 있거나 或 髮脫不生하거나 或 骨體胸膈頑硬刺痛하고, 目不了了한 者는 通瘀治血湯으로 治한다. 小柴胡에 當歸, 芍藥, 桃仁, 紅花, 大薊를 加하여 治한다.

瘀血이 中焦에 있으면 腹痛, 脇痛, 腰際間刺痛滯着하면 血腑逐瘀湯으로 治한다. 小柴胡湯에 香附子, 薑黃, 桃仁, 大黃을 加하여 治하기도 한다.

瘀血이 下焦에 있으면 季肋少腹脹痛, 刺痛, 大便黑色하니 失笑散에 醋軍, 桃仁을 加하여 治한다. 膈下逐瘀湯도 역시 可能하다.

瘀血이 裏에 있으면 口渴하니 內에 瘀血이 있어 氣를 阻礙하여 水津이 上升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니 故로 血渴이라 한다. 瘀血이 없어지면 渴도 없어진다. 四物湯에 山棗仁, 丹皮, 蒲黃, 三七根, 雲苓, 枳殼, 甘草를 加하거나 小柴胡湯에 桃仁, 丹皮, 牛膝을 加하여 治한다.

瘀血이 腠理에 있으면 營衛가 不和하여 發熱惡寒하니 小柴胡湯에 桃仁, 紅花, 當歸, 荊芥로 治한다.

瘀血이 肌肉에 있으면 翁翁發熱하고, 自汗盜汗한다. 肌肉은 陽明이 所主하므로 陽明燥氣와 瘀血이 蒸鬱하는 故로 白虎湯證의 形狀을 하니 犀角地黃湯에 桃仁, 紅花를 加하여 治한다. 血腑逐瘀湯에 醋炒大黃을 加하여 역시 治할 수 있다.

### III. 結 論

近代에 이르러 西洋의 科學文物이 廣範圍하게 轉派됨으로 因하여 中醫學界에도 西洋醫學의 流入되어 中醫와 西醫가 共存하게 되었다.

唐宗海는 이 時期에 태어나 일찍이 中國의 古代 學文을 工夫하여 中醫學에도 심취하여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을 熟讀하고 아울러 近代의 西洋科學技術과 西洋醫學에 함께 匯通하여 心得한 바가 獨特하니 그에 대한 生涯와 醫學思想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唐宗海의 字는 用川이며, 四川省 彭顯人으로 清代 同治元年 西紀 1862年에 出生하여 民國七年 西紀 1918年에 죽었으니 享年 56歲였다.
2. 唐宗海의 著書로는 《中西匯通醫經精義》, 《血證論》, 《金匱要略淺註補正》, 《傷寒論淺註補正》, 《本草問答》, 《醫易通說》, 《痢證三字訣》이 있다.
3. 唐宗海는 中醫와 西醫의 匯通을 主張하여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의 經旨를 西醫의 解剖 生理學的인 理論을 利用하여 解析하였다.
4. 唐宗海의 中西匯通思想은 中醫와 西醫가 發生地域이 서로 다르고 說明方法이 다르지만 그 原理는 相通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항상 中醫學을 우선하여 重中輕西를 主張하였다.
5. 唐宗海는 血證에 대하여 깊은 研究를 하여 《內經》, 《難經》 등 諸書와 그의 臨床經驗을 總括하여 最初로 專門的인 著書인 《血證論》을 著述하여 後學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6. 唐宗海의 血證에 대한 研究는 먼저 陰陽水火氣血論을 그 基礎로 하고 있는

데, 陰陽水火氣血間에는 生理的으로 相互資生, 相互依存的인 關係가 있다고 보고, 病理上에서도 역시 相互影響, 相互轉變하니 그 治療는 治血理氣와 造化陰陽을 우선하였다. 또한 陰陽水火氣血의 相互 維系的關係의 中心軸이 脾胃에 있다고 보고 施治에 있어서 脾胃를 調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7. 唐宗海는 血證治療에 대하여 止血, 消瘀, 寧血, 補血의 四大綱領을 提示하여 血證의 治療는 止血 後 消瘀, 消瘀 後 寧血, 寧血 後 補血의 順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아울러 臟腑經脈과의 關係와 發病情況과 病所를 考慮하여 辨證施治하였다.

이와같이 唐宗海의 醫學思想은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을 中心으로 研究를 하였고 아울러 西洋醫學을 研究하여 中西匯通思想을 主張하였고, 血證論에 대하여 많은 學術的 業績이 크므로 그의 이러한 醫學思想에 대하여 좀더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思料된다.

## 參考文獻

1. 洪元植編著: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2. 甄志亞主編:中國醫學史,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裘沛然主編: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4. 北京中醫學院:中醫各家學說, 北京,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9
5. 謝觀:中國醫學大辭典, 北京, 中國書店首都發行所, 1988
6. 李相殷監修: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館編輯部, 1987
7. 民族文化研究所:中韓辭典, 서울, 1993
8. 王清任:醫林改錯, 臺北, 集文書局,
9. 陳修園:陳修園醫書五十種, 臺北, 1978
10. 唐宗海:醫經精義,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87
11. 唐宗海:傷寒論淺註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3,
12. 唐宗海:金匱要略淺註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3
13. 唐宗海:血證論,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3
14. 唐宗海:本草問答,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3,
15. 唐宗海:醫易通說, 醫成堂, 서울, 1994
16. 金基郁:醫易通說을 통한 唐宗海의 思想研究, 東國大學校, 1991